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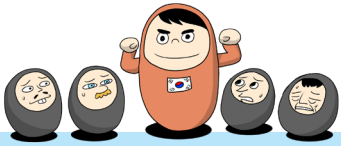
웹툰 | **곽백수** 작가
해설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변화된 글로벌 통상 환경을 대응하라!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는 곽백수 작가가 전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이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브랜드 웹툰입니다.

**기　획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　행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 2020년 12월 00일
**웹　툰 |** 곽백수 작가
**디자인 |** 플랜엑스

**[비매품]**

# CONTENTS


1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흐름

해설_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3대 키워드

2화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해설_ 신남방 · 신북방 정책

3화 FTA 의의 및 효과

해설_ FTA의 효과와 체결 현황

4화 FTA 활용 지원 시스템

해설_ FTA 활용 지원 서비스 안내

5화 수입규제 대응 및 지원

해설_ 수입규제 대응지원 안내

6화 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업의 창과 방패

특별판 1부 :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해설_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

특별판 2부 : Post 코로나 시대를 위한 新통상정책

해설_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신 통상전략 'K-통상'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 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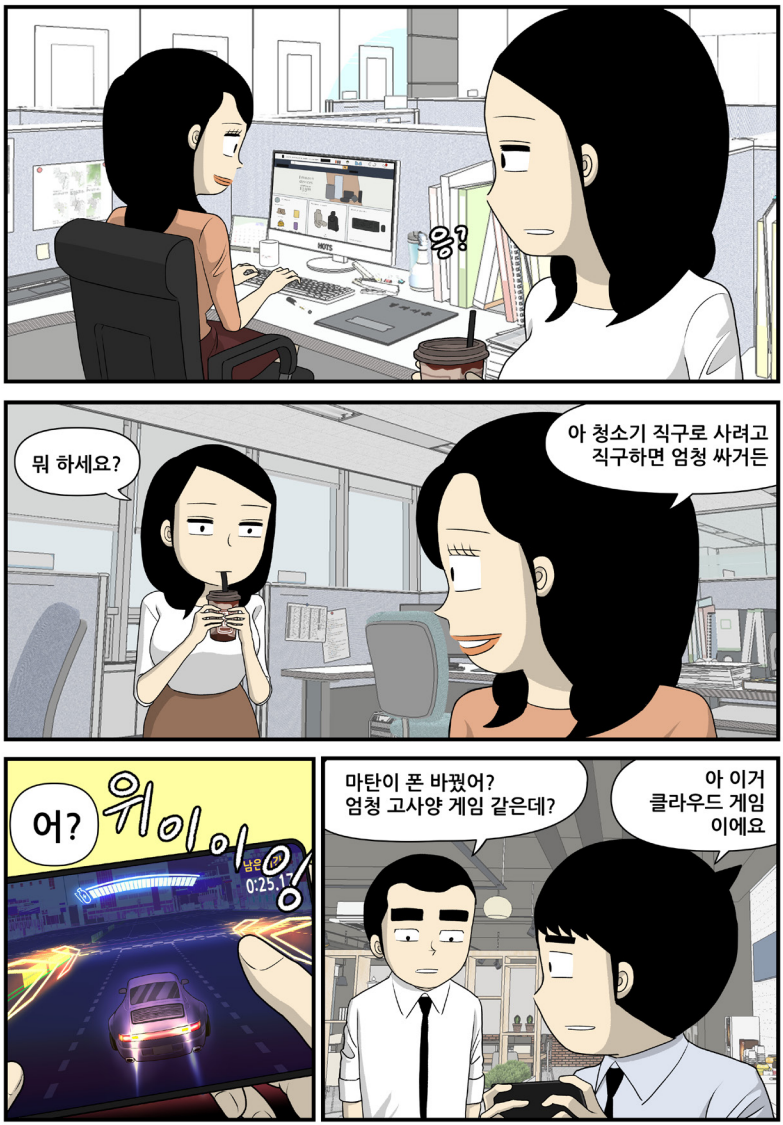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흐름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3대 키워드





#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흐름




어차피 연산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저사양 폰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방식으로 한 달에 10달러만 내면 무제한 이용 가능하고요
아.. 그래..
하...진짜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해요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척척 사질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사도 없는 해외 서비스를 통해 게임을 즐기기도 하더라고
이제 정말 국경 없는 세상이 온 거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음...그게 꼭 그렇지만 않아
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나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면
오히려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잖아
아..
그동안 WTO 다자통상체제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최근엔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장벽을 높이기도 하고 정치적·역사적 갈등이
무역 제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무역장벽
무역장벽
맞아요 일본의 수출규제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로
각국이 각자도생을
외치고 있으니
섣불리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국제교역이지


하지만 잠시 역행하는 듯 보여도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거야
오히려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
혁신적이고 멋진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하는 자가 나중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언제나 그렇듯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맞아요 방어만 해선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잠깐.. 그런데 선배는 왜 말만 그렇게 하고 방어만 하는 거예요?
응?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우스 최고의 철벽남이잖아요
엥.. 그게 무슨
선배도 이제 방어만 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좀 나가 봐요
야.. 넌 왜 갑자기 얘기가 그쪽으로 새는 거야?

# 1화

#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3대 키워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3가지는 ① WTO 중심의 다자체제의 약화와 메가 FTA의 확대, ②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③ 디지털 무역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 1. 다자체제의 약화와 메가 FTA의 확대 : WTO의 위기와 새로운 통상

WTO 출범 이후 ① 무역의 다양화 및 복잡화, ②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 ③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회의, ④ 민간 영역 확대 등의 이유로 WTO 다자무역체제는 점점 약화되어 온 반면,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WTO 회원국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 체결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는 일본 등 11개국간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되었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15개 회원국이 정식 서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메가 FTA를 통해서 WTO 중심의 다자간 협정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양자 및 메가 FTA 체결 현황** WORLD TRADE ORGANIZATION

| | |
|---|---|
| 미EU 무역협상 | |
| 미일 무역협정 | |
| 일-EU EPA | |
| USMCA | |
| CPTPP(11) | |
| RCEP(16) | |
| ASEAN(10) | |
| 한국과 양자 FTA 발효중인 국가 | |

## 2.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 총성없는 무역전쟁

미중간 헤게모니 갈등과 전 세계로 확산된 보호무역조치는 당분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간 통상분쟁은 갈등이 장기 지속되면서 양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전환 기간에 돌입하여 영-EU간 협상이 진행 중인 브렉시트(Brexit)도 현재까지도 노딜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유럽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조치는 그 수위와 강도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 3. 디지털 무역의 확대 : 새로운 통상 규범의 필요성 증대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재화가 탄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도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교역재로 생각하지 못했던 의료, 교육, 광고와 같은 서비스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로 국경 간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인 공유경제,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무역의 확산을 수용하기 위한 국제 통상규범은 미비한 상황이라 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디지털세 도입 등이 있습니다.

### 새로운 무역 패턴 예시

| ❶ 기존에 없던 데이터 교역 | ❷ IT 하드웨어 수출 ▸디지털 서비스 | ❸ 디지털 제품 ▸스트리밍 서비스 |
|---|---|---|
|  |  |  |
| 해외 서버 | 해외 서버 | 과거 서비스 |
| ⌄ | ⌄ | ⌄ |
|  |  |  |
| 국내 서비스 | 국내 서비스 | 현재 서비스 |
| 디자인 파일(해외) ▸3D 프린팅(국내) | 컴퓨터 서버(해외) ▸클라우드 서비스(국내) | 필름, CD 구매(과거) ▸스트리밍 감상(현재) |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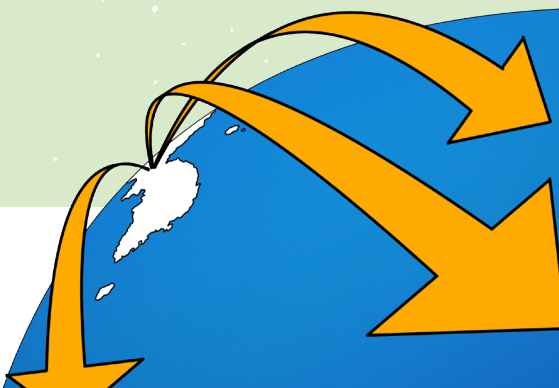


# 2화

#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신남방·신북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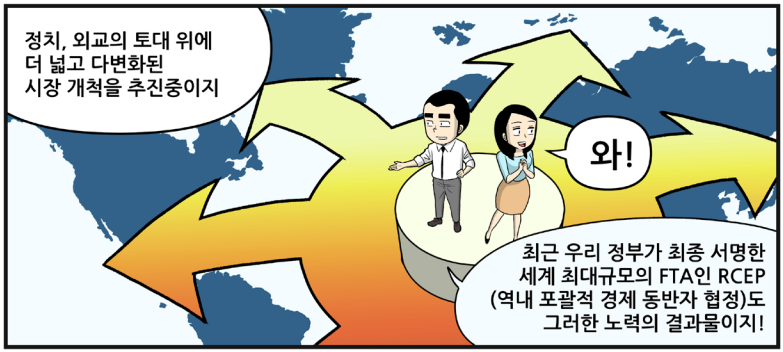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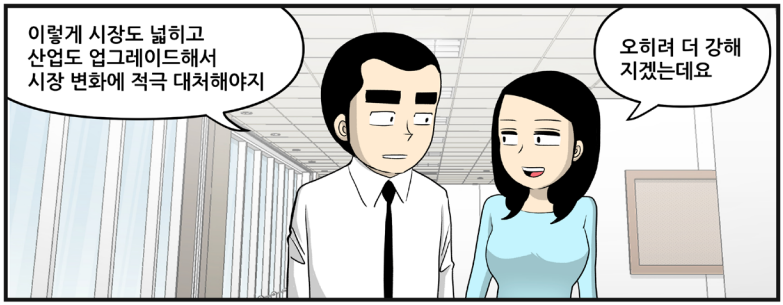
# 2.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거기에 미중 통상분쟁까지
겹치면서 교역환경도 불안정해지고
그럼 큰일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2위 국가인데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정부에서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자유무역 기조가
후퇴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어
거기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FTA네트워크 확대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신북방
신남방이요?


기존에 정치, 외교 차원을 위한
북방·남방정책을
경제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으로
쌍 윷
경 제
정치 / 외교


정치, 외교의 토대 위에
더 넓고 다변화된
시장 개척을 추진중이지
와!
최근 우리 정부가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의 FTA인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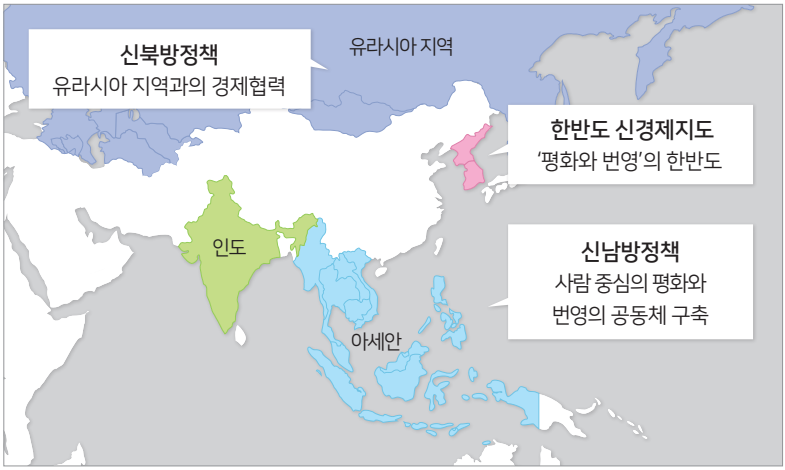

이렇게 시장도 넓히고
산업도 업그레이드해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지
오히려 더 강해
지겠는데요


맞아 시장 다변화는 정말 중요하지
어? 기성남 차장님
자네들도 나처럼 좁은 시장만 보다 낭패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시장 다변화 해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최이사님 라인 하나만 타다가 최이사님 좌천 당해서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
자네들도 미리미리 다변화 해

# 2화

## 신남방·신북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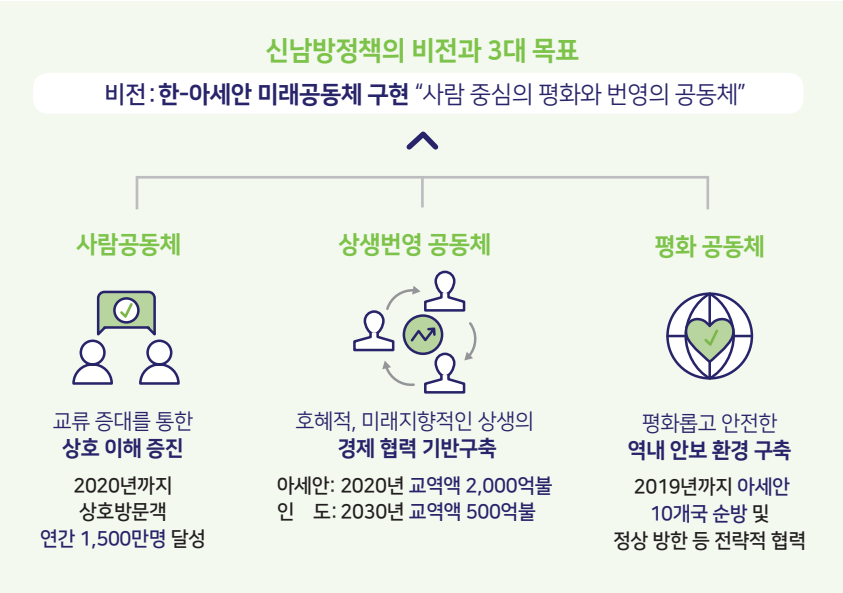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우리 교역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남방 정책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1. 신남방 정책

우리 정부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아세안·인도를 4강에 준하는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7.11월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신남방 협력 비전으로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평화공동체)'을 제시하였습니다.




## 2. 신북방 정책

우리 정부는 거대한 시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7.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블라디보스톡)을 계기로 9개 다리* (9-Bridge) 전략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 우즈벡, 카자흐) 순방('19.4월), 국무총리의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방문('19.7월) 등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였습니다.

* 한-러 양국간 9개 분야별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 전략(①조선, ②전력, ③가스, ④항만, ⑤북극항로, ⑥철도, ⑦산업단지, ⑧농업, ⑨수산)

##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4대 목표

### 비전 :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 정체성 회복



새로운 경제 공간과
기회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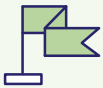


동북아·한반도
평화 장착



동북아책임공동체·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

### 신북방정책 4대 목표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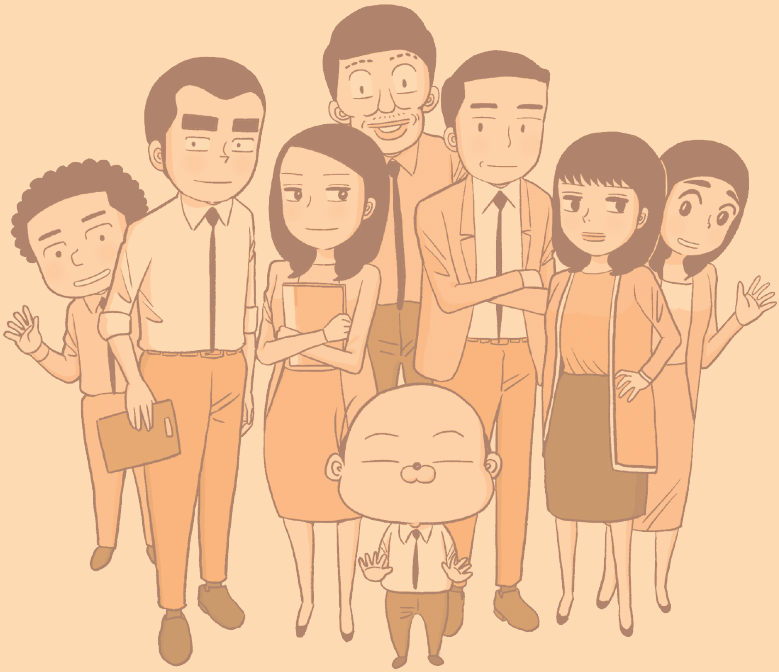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

M·E·M·O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 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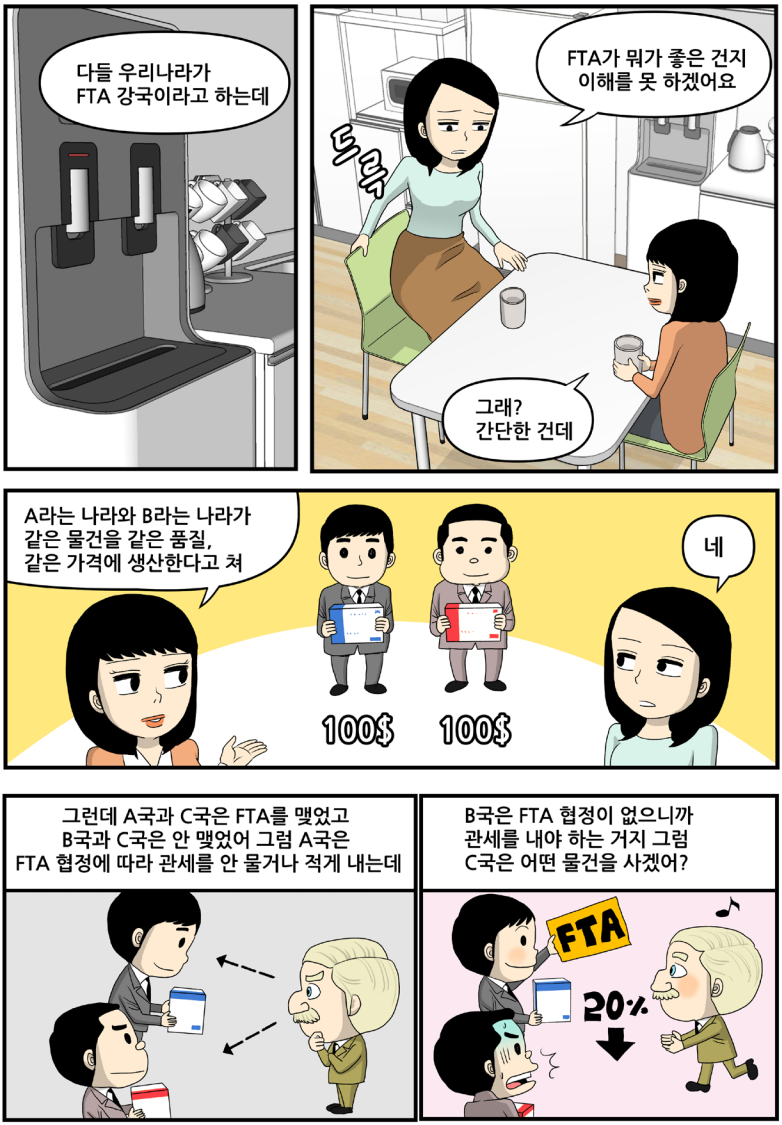
# FTA 의의 및 효과

FTA의 효과와 체결 현황





# 3. FTA 의의 및 효과


다들 우리나라가
FTA 강국이라고 하는데
FTA가 뭐가 좋은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드르륵
그래?
간단한 건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같은 물건을 같은 품질,
같은 가격에 생산한다고 쳐
100$
100$
네
그런데 A국과 C국은 FTA를 맺었고
B국과 C국은 안 맺었어 그럼 A국은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안 물거나 적게 내는데
B국은 FTA 협정이 없으니까
관세를 내야 하는 거지 그럼
C국은 어떤 물건을 사겠어?
FTA
20%


이게 FTA의 상품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 건데
이것 말고도 서비스 무역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기술장벽의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간 교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약속이지
그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FTA를 빨리 맺어야겠네요.
안 맺는 게 바보잖아요?
실제론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FTA를 맺는다는 건
우리나라도 협상 결과에 따라
상대국에 대하여
시장 개방을 해야 하니까
협상 상대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FTA 체결이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서
맺어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최근 영국과 FTA를 맺은 이유도 그거 때문이야
네? 영국과는 이미 맺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영국이 EU 가입국이었을 때 이야기지, 브렉시트를 했잖아
아...
예를 들어 영국과 교역을 할 때는 지금까지 한-EU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그런 혜택이 중단되는 거지
FTA


그래서 정부에선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영국과 신속한 FTA 체결을 이뤄냈지
그럼 지금 한-영 FTA를 활용해서 영국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지만
금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영국은 한-EU FTA를 지속해서 적용받게 되고,
전환기간 2020.02.01
2020.12.31
한 - EU FTA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한영 FTA가 적용될 예정이지
한-영FTA 2021.01.01
한-영 FTA


성과장님 덕분에 FTA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꾸벅
아 맞다 최근에 우리 부서에서도 'FHA'협정을 맺었어요
FHA협정이 뭐야?
회식 때마다 사원들끼리 고기파, 해물파, 치킨파 등등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없게 FHA '자유 회식 협정'을 맺었어요
어떻게?
앞으로 모든 회식은 뷔페로 가기로
아...

# 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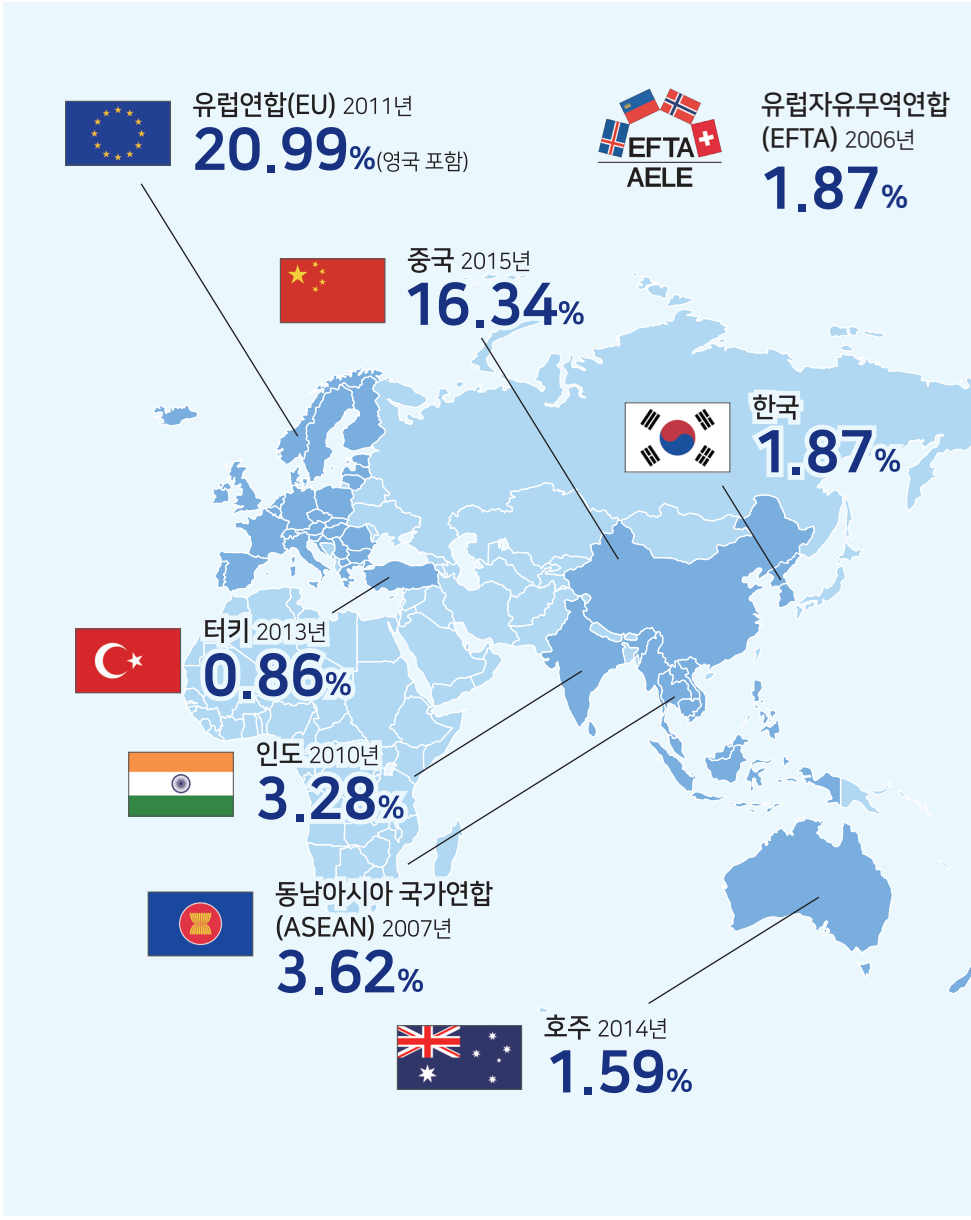
## FTA의 효과와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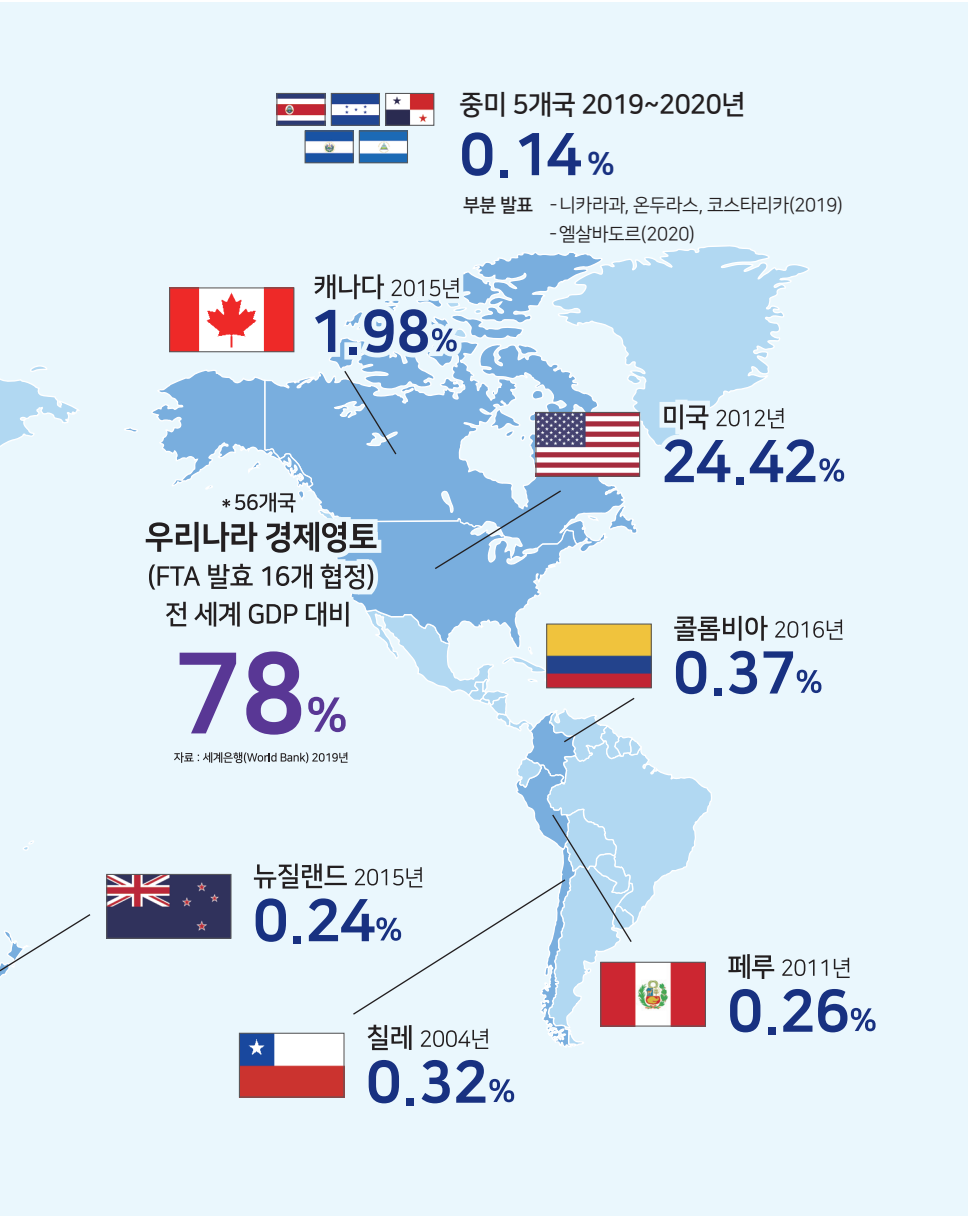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뜻합니다. FTA 체결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회원국 간의 상품 교역시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특혜 관세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간에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56개국과 총 16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GDP로 환산할 경우 전 세계 GDP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Brexit)를 대비하여 한-영 FTA를 체결 (서명 '19.8월, 국회비준 10월)에 하였으며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중미 5개국 2019~2020년
0.14%
부분 발표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2019)
- 엘살바도르(2020)
캐나다 2015년
1.98%
미국 2012년
24.42%
*56개국
우리나라 경제영토
(FTA 발효 16개 협정)
전 세계 GDP 대비
78%
자료 : 세계은행(World Bank) 2019년
콜롬비아 2016년
0.37%
뉴질랜드 2015년
0.24%
페루 2011년
0.26%
칠레 2004년
0.32%

## 한-영 FTA가 궁금합니다!

**Q 한-영 FTA의 체결 효과는 무엇인가요?**

A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개방(상품, 비스 투자 등)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서명 '19.8월, 국회비준 10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한-EU FTA와 같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영국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합니다.

**Q 한-영 FTA와 한-EU FT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한-영 FTA는 FTA 상대국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한-EU FTA 대비 관세율할당, 원산지 및 지재권 규범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❶ (관세율할당)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 영국에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 물량은 한-EU FTA 대비 각각 10.9%, 9% 수준으로 조정('16-'18년 수입량 기초)

❷ (원산지) EU 역내에서 운영되던 기존 생산 공급망의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EU산 재료 · 공정 제품에 대해 3년간 원산지 인정

❸ (지재권) 영국은 주류 2개 품목, 우리는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GI)*를 인정하고 관련 지재권을 보호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영국(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쉬위스키

**Q 한-영 FTA는 언제 발효하나요?**

A 현재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아직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20.2.1~12.31)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EU와 관세동맹/단일시장에 잔류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EU FTA가 적용,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입니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하여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전환기간 이후로 변경됩니다.

M·E·M·O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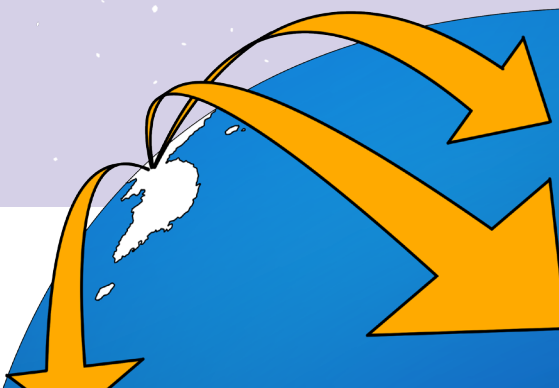


# 4화

# FTA활용 지원 시스템

FTA 활용 지원 서비스 안내





# 4. FTA활용 지원 시스템




지금도 마진 10% 보고
수출하고 있는데
10%를 깎아 달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 이거
큰일이구먼
그런데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였지?
왈라왈라요
어? 거기 우리나라랑
FTA 체결한 국가일 텐데
자네 회사 FTA 특혜관세로
수출하고 있었던가?
네? 그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해서요...
우리 같이 작은 업체들은 그런 게 있어도 막상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FTA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
FTA종합지원센터
전문지식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해 전화 상담 및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아 이런 곳이 있었군요
저희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이런 정보에 어두웠나 봐요
어허 이 친구
또 무슨 소리야
FTA 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FTA 종합지원센터 외에도
15개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저도 저희 지역
FTA 지원센터에 빨리 찾아가
봐야겠어요


며칠 후
대기전자 건은 잘 처리됐어?
아 네 다행히 해당품목이 FTA협정상 무관세라서 바이어가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기존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거 잘 됐고만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왈라왈라국에서 환경보호 인증이 강화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거 또 골치 아프게 됐네
이 문제는 왈라왈라국에 있는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대요
아 맞다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는 세계 주요 FTA 체결국에 있으니까


그나저나 예전엔 관세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젠 각종 규제들로 이루어진
비관세 장벽들도 파악해야 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에휴..
그러니까...
응? 나리 넌 왜 한숨이야?
득점 선배...
밤새워서 보고서 만들어서
최 이사님에게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내용도 충실하고
잘 쓴 거 같은데
내가 한번 봐줄까?


이건 내용이 문제가 아닌데 내용은 아주 좋아
그렇죠
이건.. 일종의 비관세 장벽 같은 거라고 봐야 하나?
비관세 장벽이요?
최 이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노안이 오셨거든
그러니까 최 이사님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폰트 크기를 14로 해야돼
오 아주 훌륭해!
비관세 업무장벽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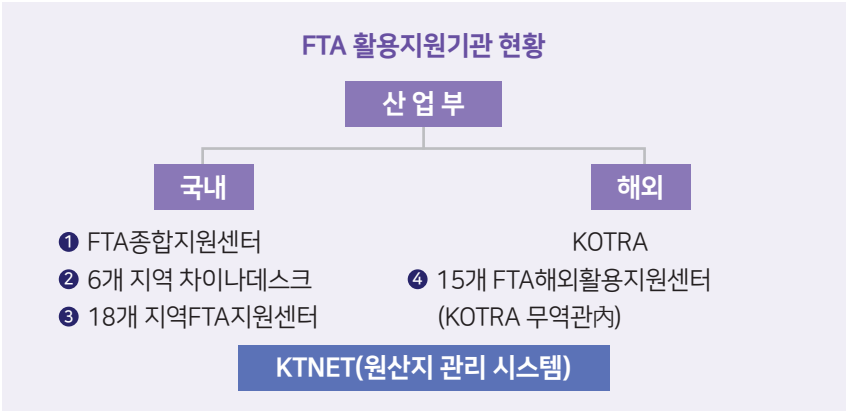
# 4화

# FTA 활용지원 서비스 안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TA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컨설팅, 교육·인력양성 사업과 시스템 보급을 지원합니다.

| | 주요지원내용 | 지원기관 |
|---|---|---|
| **정보제공·상담** | - FTA 협정별 주요내용<br>- 수출 지원사업 정보<br>- 최신 FTA 뉴스 등 | - FTA 정보포털<br>1380 콜센터 |
| **컨설팅** | - 원산지관리<br>-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br>- 사후검증 대비<br>- 비관세장벽 대응 | - FTA 종합지원센터<br>- 지역FTA센터(17개소)<br>- 차이나데스크(7개소)<br>- 해외FTA센터(15개소) |
| **교육·인력양성** | - 업종별 FTA 활용 교육<br>- 대학교 정규과정<br>- 고용계약형 FTA 실무 인력양성(특성화고)<br>- FTA e러닝 | 코트라 아카데미<br>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br>생산성본부 |
| **시스템보급** | - 원산지 관리 시스템<br>- 농수산 관리 시스템 | - KTNET<br>(FTA KOREA, FTA Agri)<br>- 국제원산지정보원<br>(FTA PASS) |

이를 위해 국내에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18개 지역 FTA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KOTRA를 통해 15개의 FTA해외 활용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❶ 무역협회 본부내 설치(4실 39명 : 정부 · 유관기관, 무협, FTA 전문가로 구성)

❷ 6개 지역 무역협회지부(수원, 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

❸ 대한상의(11), 지자체법인(3), 무역협회(2), 지역단체(2) / 지역센터별 4~9명

❹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톈진),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뉴델리, 첸나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 필리핀(마닐라), 중남미(멕시코시티), 영국(런던)

## 지원기관 연락처

• **산업부 포털 사이트 :** FTA 전반 정보
홈페이지 : www.fta.go.kr

• **FTA 종합지원센터 :** 1380콜센터, 상담교육, 컨설팅
홈페이지 : www.fta1380.go.kr / 전화 : (국번없이) 1380

• **지역 FTA지원센터(전국 17개소) :** 상담, 컨설팅, 교육, 설명회

| | |
|---|---|
| 경기 : 031-8064-1397 | 경기북부 : 031-8065-1398 |
| 경기북서부 : 031-995-7484 | 인천 : 032-810-2835/6 |
| 부산 : 051-990-7016 | 대구 : 053-222-3105 |
| 광주 : 062-350-5861 | 대전 : 042-480-3044/3045 |

울산 : 052-287-3060~1
강원 : 033-256-3068
충북 : 043-229-2720
충남 : 041-539-4591
전북 : 063-711-2046
전남 : 061-288-3872
경북 : 054-454-6603
경남 : 055-210-3048
제주 : 064-757-2164
경북동부 : 054-274-2222~6
경기북서부 : 031-995-7484
세종 : 070-7780-2436

• 해외 활용지원센터 : 활용 설명회 상담, 컨설팅 헬프데스크 이동상담


**중 국**
베이징 : (86-01 )6410-6162 / 717132@kotra.or.kr
상하이 : (86-21)5108-8771 / crystal.lee@kotra.or.kr
칭다오 : (86-532)8388-7931 / zhouchunjia@kotra.or.kr
광저우 : (86-20)2208-1610 / hbkim@kotra.or.kr
다롄 : (86-411)8253-0051 / Alice717133@kotra.or.kr
톈진 : (86-22)2329-6631 / gaoyuzhu@kotra.or.kr


**베트남**
하노이 : (84-4)3946-0511 / kty5714@kotra.or.kr
호치민 : (84-8)3822-3944 / rainaju27@kotra.or.kr


**인 도**
뉴델리 : (91-11)4230-6300 / yoons@kotra.or.kr
첸나이 : (91-44)2499-7283 / d.shin@kotra.or.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62-21)574-1522 / anis@kotra.or.kr


**태국** 방콕 : (66-2)035-1555 / dana719176@kotra.or.kr


**필리핀** 마닐라 : (63-2)8894-4084 / thkim@kotra.or.kr


**중남미** 멕시코시티 : (52-55)5514-3173 / shine@kotra.or.kr


**영국** 런던 : (44-20)7520-5303 / mj.kim@kotra.or.kr

• 코트라 : 업종별 FTA교육
02-3497-1195

• KTNET : 원산지 확인서/증명서 발급(FTA-Korea, FTA-Agri)
www.utradehub.or.kr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 5화

# 수입규제 대응 및 지원

수입규제 대응지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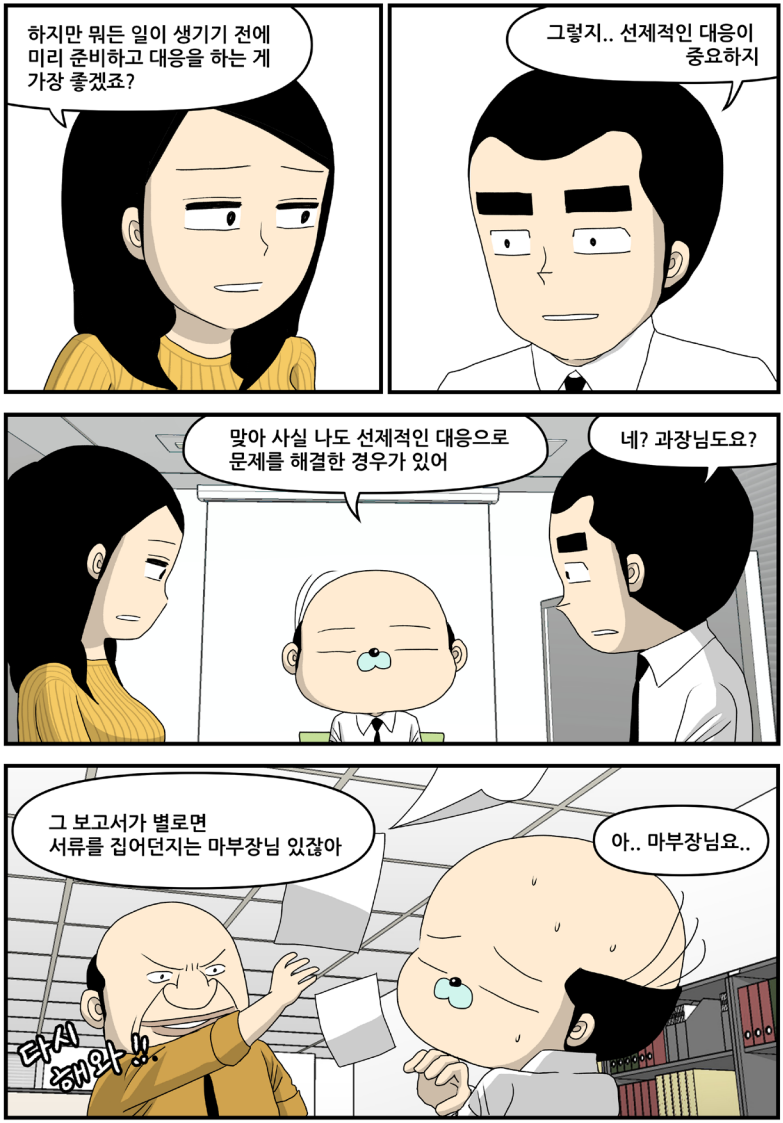


# 5. 수입규제 대응 및 지원


아 요즘엔 왜 이렇게
복잡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거야
뭐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등
아 복잡해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기본 관세 이외의
장벽들을 쌓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
국제 무역 규약에 어긋나는 거 아냐?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수입규제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를 남용해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도 이런 일 당하면 타격이 클 텐데..
그래서 요즘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어떻게?
얼마 전에 XXX 국가에서 우리나라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ㅇㅇㅇ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후후...
덤핑
그런데 ㅇㅇㅇ 기업에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서 반덤핑 관세를 피해갈 수 있었대요
헉
삘쭘


와 그럼 오히려 돈도 더 벌고
반덤핑 관세도 피해 가고
일석이조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차별화된 고수익 제품 위주로
생산을 전환해서 수익성도
제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고
많은 기업들이 수입규제에 대해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맞아요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런 대응 역량을
갖추면 좋죠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와 협상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음 든든하고만


하지만 뭐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지
맞아 사실 나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어
네? 과장님도요?
그 보고서가 별로면
서류를 집어던지는 마부장님 있잖아
아.. 마부장님요..
다시 해와!!


다른 건 괜찮은데
그 A4지 모서리에
찍히는 건 좀 위험하더라고
아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선제적 대응방법을
준비했어
뒤 적
설마 한번
들이받으시려고요
라운드 처리된
A4용지를 주문했지

# 5화

# 수입규제 대응지원 안내

## 수입규제란?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특정 국가가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다양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으며 이들은 국제 협정상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로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세 개가 조치가 합당하다고 교역 상대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 덤핑, 보조금, 그리고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전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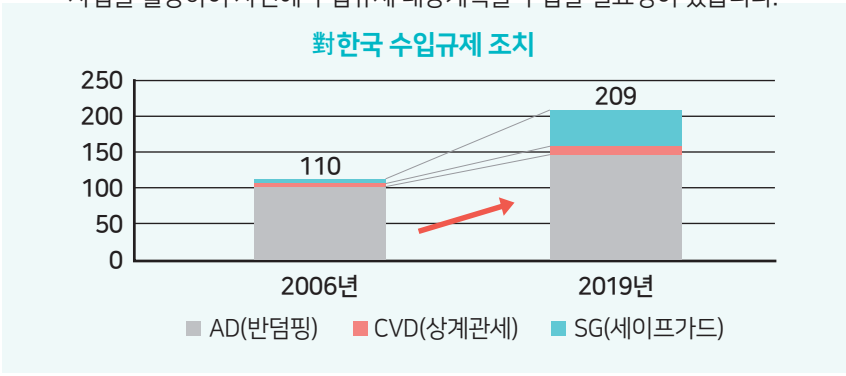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는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규제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수입규제 대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내용을 소개합니다.

**Q 저희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아직 수입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없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대응이 필요할까요?**

A 과거 수입규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시장규모가 크고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품목에까지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수입규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전에 수입규제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이 수입규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은 총 세 부분의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과 기업 통상 담당자 교육,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입니다. 각각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규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안내

### ❶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 지원내용 : 전문기관(법무·회계법인)과 기업을 연계하여 법률·회계 자문(국가별 조사절차, 덤핑률 계산 등), 피해 최소화 대응전략 등 자문 제공
-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antidumping.kita.net/)의 컨설팅 메뉴를 통해 신청
- 유선 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02-6000-8383)

### ❷ 기업 통상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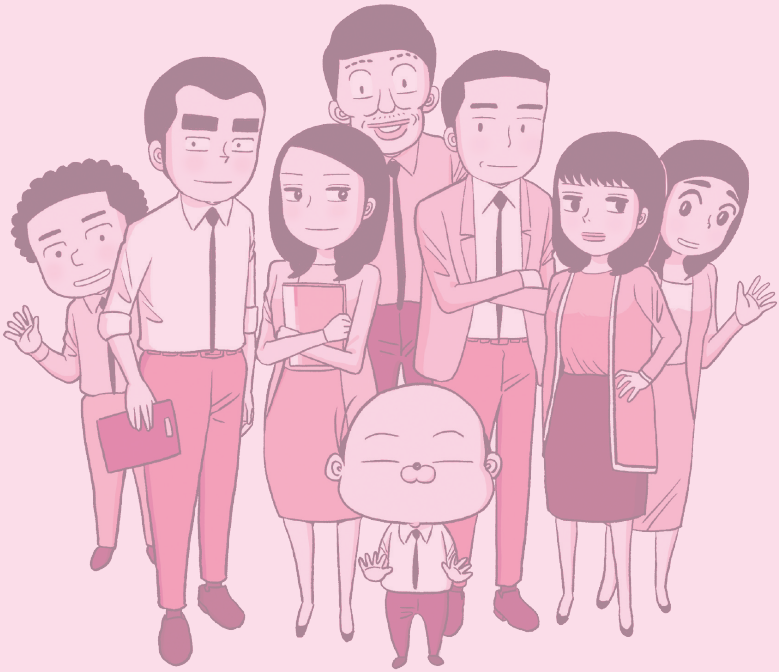
- 지원내용 : 통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수입규제제도 설명, 기업리스크 진단, 질문서 분석·답변, 국가별 조사·재심절차 대응방법 등) 제공
- 신청방법 : 매년 하반기('20년도는 10월말~11월중)에 실시되며, 교육개최 전,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를 확인
- 유선 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02-6000-8383)

### ❸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 지원내용 : 정례적 또는 업계·협회 요청시 산업단지, 관련업계 단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주요 수입규제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 및 기업 애로사항 등 논의
- 신청방법 : 각종 협·단체를 통해 신청수요 확인
- 유선 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02-6000-8383)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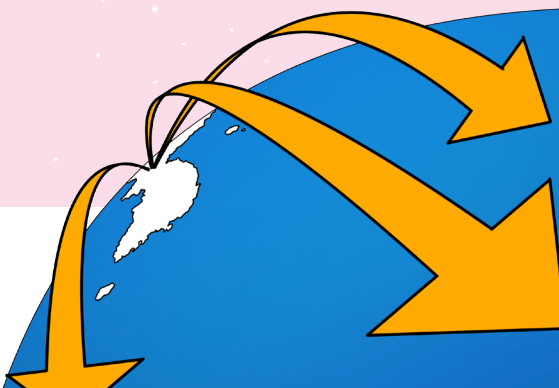




# 6화

# 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업의 창과 방패





# 6. 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업의 창과 방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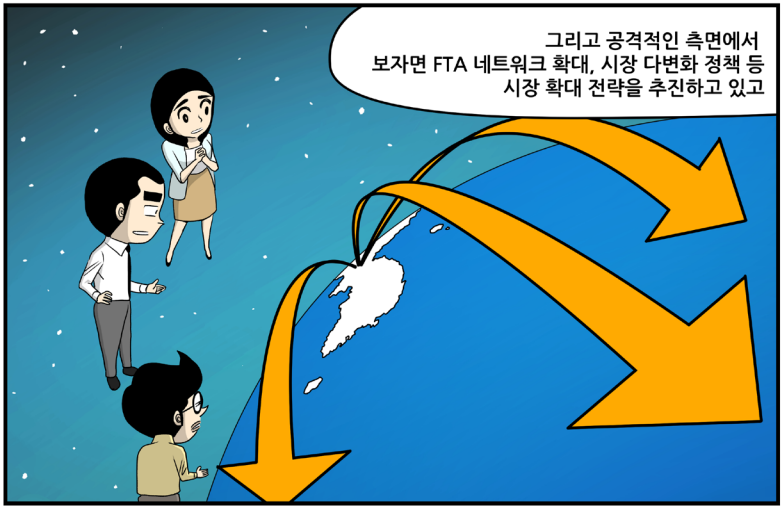



무슨 소리예요
전투의 기본은 공격이지
공격을 해야 이기지
수비!
음.. 공격과
수비 둘 다 중요하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통상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갑자기?


우리 정부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패 역할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 하에서
공세적으로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동시에 하고 있어
여긴 어디?


수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교역 상대국의 불법적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WTO
외교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어


예를 들어 과거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해
승소한 사례가 있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FTA 네트워크 확대, 시장 다변화 정책 등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또 '디지털'과 '환경'이 중요시되는
글로벌 新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결국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투에선 공격과 수비
둘 다 중요하단 이야기지
아..
역시
생각해 보니 저도 너무
수비적으로만 살아온 거
같아요 앞으론
공격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요새 박 과장님이
퇴근하고 한잔하자고 하시는데
맨날 수비적으로 피하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 수저야
오늘도 한잔해야지
아네 좋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1차 쏘는 거?
으응?
아 요즘.. 소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아... 맞다
나 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 특별판 1부

#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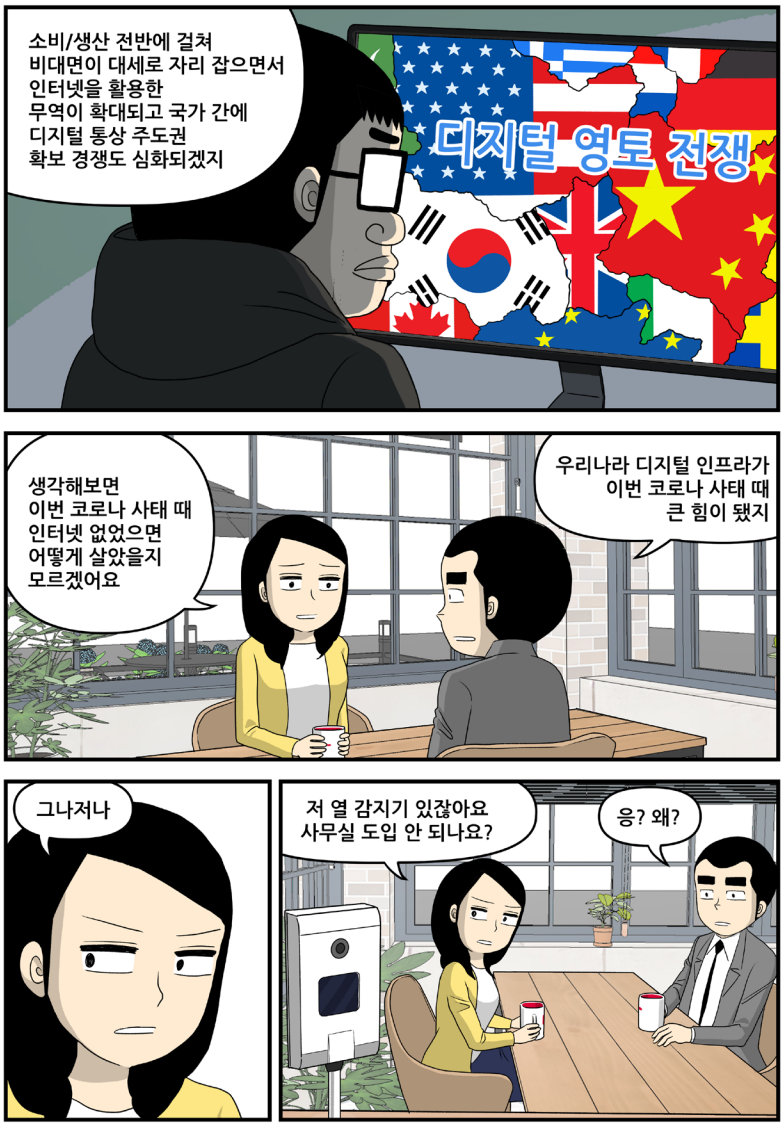




# 특별판 1부 :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이렇게 되면
통상환경도 크게
변하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각 국가들은 각자도생과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의료나 국가 필수품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인력이나 상품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에 나가있던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던데
그렇구나


소비/생산 전반에 걸쳐
비대면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이 확대되고 국가 간에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도 심화되겠지
디지털 영토 전쟁
생각해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인터넷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큰 힘이 됐지
그나저나
저 열 감지기 있잖아요
사무실 도입 안 되나요?
응? 왜?


저런 게 사무실에 있으면
39.4
삐익
기성남 차장님 열받으셨나 봐요
결재는 나중에 받으러 가자
이렇게 쓸 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지?

# 특별판 1부

##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

현재 전세계 각국은 미 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속에서 2020년 2월 발발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를 맞아 인력 물자의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무역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엄중한 상황 속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1. 정부의 경제개입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늘려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은 당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거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까운 미래에 이들 보조금이 WTO 보조금 규정과 연계하여 문제시 될 확률은 낮으나 지급과정의 투명성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한 덤핑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 각 정부들이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외국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투자제한 강화 및 국유화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봉착한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타 국가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3. 리쇼어링 확대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해온 기존의 생산모델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건제품과 핵심산업의 국내생산을 늘리고 주요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리쇼어링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U는 의약품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제약업 리쇼어링 정책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대중의약품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에서 의료장비와 약품 생산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4. 디지털 경제 부각

코로나19가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언택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로운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익명 처리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데이터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 확산**

∨

**COVID-19 pandemic**

∨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경쟁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 각종 수입규제조치 강화
-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 무차별적 자국기업 지원
- 기간산업 국유화
- 리쇼어링 인센티브 및 자국산 우선구매 확대

**美中 갈등 심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 1단계 무역협정 불이행 관련 보복조치 가능성
- 미국의 안보와 연계한 수출입 통제 확대
- 국제공조의 어려움 지속

**디지털 경제 부각**

**디지털 무역 규범화 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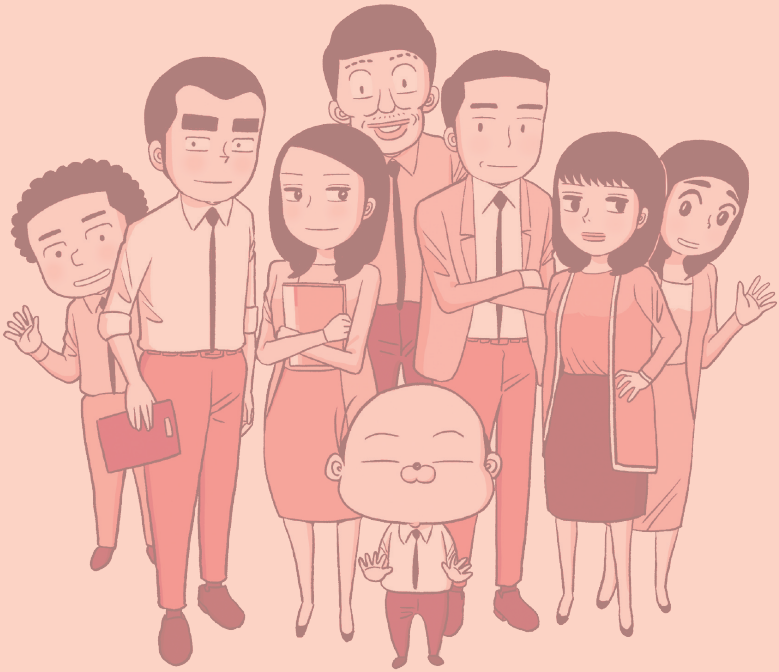
-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논의 활성화
- 디지털 분야 국내규제 완화 노력

## M·E·M·O



#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만화로 즐기는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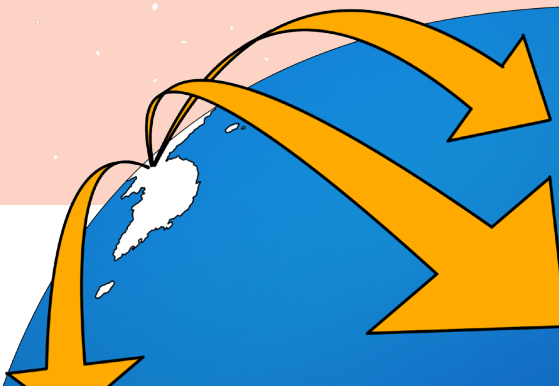


# 특별판 2부

# Post 코로나 시대를 위한 新통상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신 통상전략 'K-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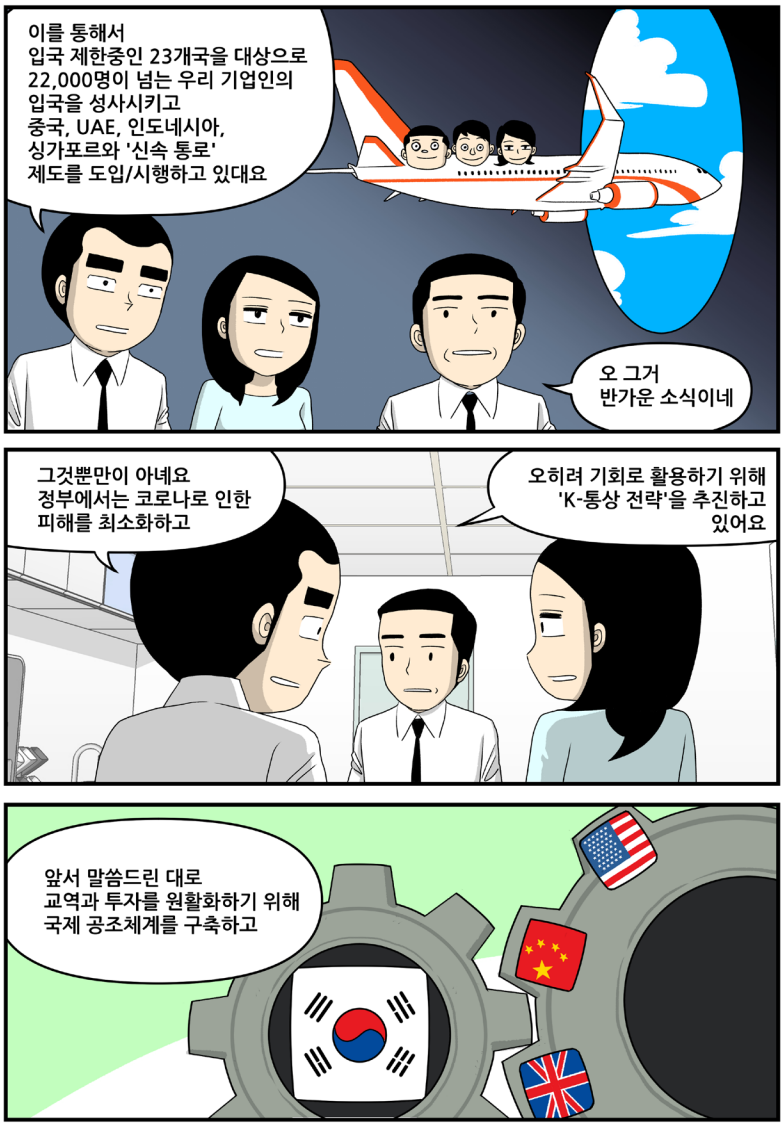




# 특별판 2부 : Post 코로나 시대를 위한 新 통상정책




예전엔 출장 갈 일도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물건은 택배로 보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진정한 뉴노멀이 온 거지
하지만 모든 게 디지털로
대체될 수는 없지
해외 교류가 필요한
공동연구, 기술지원 같이
인력 교류가 필요한 사안은
여전히 곤란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범부처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체계?


이를 통해서
입국 제한중인 23개국을 대상으로
22,000명이 넘는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성사시키고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신속 통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대요
오 그거
반가운 소식이네
그것뿐만이 아녜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K-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역과 투자를 원활화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과
FTA를 확대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 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거점인
미국, 중국, EU 등의 국가와는
4대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게다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도 본격화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6.22일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했고, 향후
다른 나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오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네


난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요?
우리나라가 이번 K-방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잖아?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생산이 멈췄을 때
상대적으로 계속 생산력을 유지했고
때문에 전체 경제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겠지
그럼 다시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 비율만큼 경제 규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아


언제나 위기는 기회!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됐으면 하는 비율이
하나 더 있어요
응? 뭐?
야근 비율이요
코로나 이후로 확 줄었잖아요~
아..

# 특별판 2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신 통상전략 'K-통상'

정부는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가 '자국 우선 (Deglobalization), 디지털 전환 (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 (Decoupling) 등 이른바 3D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통상전략으로써 'K-통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교역 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현재까지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과 시행하고 있는 필수 기업인의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무역협회 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필수 기업인의 해외출국 및 국내 입국 관련 사항(애로접수, 건강상태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지원, 전세기 운항협조)을 일괄 지원하는 싱글 윈도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 통관 원활화, 무역 투자제한 조치 최소화 등 보장을 위한 G20, ASEAN+3, APEC 등 다자차원의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2. 전방위 디지털 경제 협력강화

양자간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메뉴화하여 대상국의 수요와 발전 수준에 맞춰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성화 보장,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 등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 의료 교육 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 표준화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화를 위한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와 비대면 기술 실증 인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3.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신남방 신북방 FTA를 확대하고 FTA협상의 누적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 관행 챕터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 중 EU와 향후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4대 유망신산업(의료 바이오, 디지털, 소재·부품·장비, 수소경제 미래차)을 중심으로 공동 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 공급망 고도화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4. 新 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하여 각국정책 및 업종별 국가별 수출동향 등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보조금 등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민관합동 아웃리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회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덤핑조사 외에 다수기업과 연관된 산업피해 조사도 병행하여 지원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세계적 무역 투자제한 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외투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 등 기술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3D)

| 자국우선 (Deglobalization) | 디지털전환 (Digitalization) | 공급망재편 (Decoupling) |
|---|---|---|

## 정부의 신 통상전략 'K-통상'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

❶ 필수 기업인 국경간 이동 확대
❷ 포스트 코로나 新 이슈 다자논의 선도
❸ 對 개도국 K-FTA 추진 및 통상협력촉진 법적기반 마련

**전방위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

❶ 디지털 통상협력 파트너쉽 확대
❷ 디지털 관련 국내제도 개선
❸ 비대면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선점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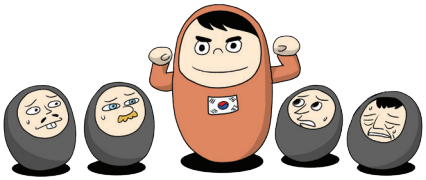
❶ FTA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지원
❷ 핵심권역별 공급망 중심의 차별화된 통상협력 추진

**新 보호무역 파고 선제대응**

❶ 민관합동 新 보호무역 대응반 운영
❷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❸ 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M·E·M·O





# 가우스 상사의
# 글로벌 통상 이야기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